

사라져가는 꽃잎 위 새겨진 이름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꽃잎, 240, 233,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인권·평화 조명

전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록자 240명(2025년 2월 기준), 피해 사망자 233명, 피해 생존자 7명.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 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11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에서 전시 ‘꽃잎, 240, 233, 7’를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한다.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수상작인 이번 전시는 성유진 작가가 기획하고 손만석·김진남·박은정·조근수·임창숙 총 6명 작가가 참여한다. 꽃잎 ‘240, 233, 7. 점점 줄어드는 숫자를 타이틀로 삼은 이번 전시는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숫자는 사라져가는 기억의 위기를 상징하며,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오늘날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다. 전시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억’ 섹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다룬다.



‘공감’ 섹션에서는 고통의 기억을 회화로 승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어지는 ‘치유’ 섹션에서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희망과 연대, 존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술을 통한 기억과 치유의 여정을 관람객에게 제시한다. 특히 지난 4일 전시와 연계해 열린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근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을 성유진 작가와 시민 3명이 함께 착용하고, ‘버려진 꽃’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11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에서 전시 ‘꽃잎, 240, 233, 7’를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한다. 사진은 ‘꽃잎, 240, 233, 7’ 전시장 전경.

을 서로의 옷에 꽃아주고 나눠주는 행위예술이 펼쳐졌다. 이때 사용된 꽃은 광주 영락공원 공동묘지에서 수거한 버려진 조화와 생화들로, 잊혀진 낫을 기리는 상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회생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퍼포먼스는 기억의 공유와 연대를 시작적으로 형성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상징적 예술 행위로 깊은 감동을 안겼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허스토리 전시관이 기억과 치유의 문화 공간이자 지역 여성문화의 중심점으로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최명진 기자

“흑약재연 무구(구사), 비룡재천 이견대인(구오), 항룡유회(상구)”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20강〉1. 건위천(乾爲天) 下

건괰 구사는 ‘흑약재연 무구’(或躍在淵 无咎), 즉 흑 뛰어 오르려다가 다시 못에 있으면 허물은 없다’는 뜻이다. 사효는 하괰에서 상괰로 이동하는 변화의 시작으로 도약의 결단이 필요하고 도약을 위한 행위가 있으면 허물이 없다. 상전에서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나아가기 위한 시도이니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해 ‘흑약재연 진무구야’(或躍在淵 進无咎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하늘을 향해 도약했다가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 목표치에 닿을 듯 하지만 못한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 모든 것이 오르락내리락 해 다음 기회에

는 이뤄지니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구사는 외괰 건괰(乾卦)의 초효로 내괰에서 외괰로 가는 때이다. 그래서 흑약(或躍)으로 뛸 약(躍)은 내괰에서 외괰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음위에 양효가 있어 힘이 부족해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니 흑(或)이다. 음위에 양효가 있어 마음은 나가려고 하지만 그 자리가 약하기 때문에 움직여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다. 구사는 구오에 가서 제왕(帝王)이 돼볼까, 출세 한번 해볼까 하는데 흑약재연이니 다시 못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러나 이는 구오, 즉 최고 자리에 오르기 위한 시도로서 아직 때를 못 만났을 뿐이니 허물은 없다. 즉 무구(无咎)라는 것이다. 구오의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루지 못해 아쉽고 시련이 있다.

점사에서 입서해 구사(※각주=하라이수(河洛理數), 차효는 진퇴에 있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할 자이다(是能當於進退而不輕於動者也/시능심여 진퇴 이불경여동자야). 고로 협자(者)는 가히 행할 일은 행하고 가히 그칠 일은 그쳐야 하며 덕에나이가 업을 뒤고 때에 맞추어 도를 행하니 뜻이 있는 선비는 마침내 과감을 이룬다(可衍則行 可止則止 進德修業 及時行道有志之士 多見利而之/가행즉행가지즉지 진덕수업 금시행도 유지사 다견과금지수. 불협자(不者)는 부귀를 사모함이 있으나 진퇴를 많이 의심해 마침내 성사되지 않는다(雖有富貴之慕 進退多疑終不成事/수유부귀지모진퇴다의 중불성사).

세운에서 구사를 만나면 벼슬하는 자는 머무르고 이저러저 보직을 기다리며(則停缺待職/즉정결대직), 선비는 재주와 기질(才質)을 쌓아두고 때를 기다린다(則藏器待時/즉장기대시). 서숙(庶俗)에 있어서는 배가지 하는 일이 어렵기만 해서 의아스러워 정할 수 없고(則百爲難難 疑而未定/즉백위근난 이의미정), 만약에 여명과 더불어 승려와 도인인 즉, 안락하고 부귀하다(若女命與僧道則安樂富貴矣/약여명여승도 즉안락부귀의)를 얻으면, 구사의 때는 상충부 관리층에 막 진입했으니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즉 40대 사원이 간부로 막 승진한 경우다.

목표한 일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서울, 인군(仁君)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구오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룡(飛龍)의 자리를 눈앞에 뒀으니 매사에 의욕을 갖고 도전해 볼만 하나 아직은 때가 성숙되지 못해 소망은 이뤄지지 않고 어려운 시기다. 구사는 상충부에 갓 진입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지도자로서 실력이 쌓이기 이전이므로 뒷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의욕만 앞선 교만한 사람으로 저지당하기 쉽다. 따라서 하충부에 있을 때의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 구사가 변하면 풍천소축(風天小畜)으로 변하고 소축은 ‘조금 쌓이고 막히게 돼 답답하다(密雲不雨之象)’는 의미로 희망, 취재, 혼담 등 성취가 어렵다. 기다리는 사람과 출산은 늦어진다. 병점에서는 사효의 위치는 가슴 밑 복부가 걸리고 아프다. 천기로는 상괰가 건변손(乾變巽)으로 오후가 돼 바람이 부나, 비는 오지 않고 여름과 가을에는 비가 온다. ‘어느 대학 교수의 고관직으로의 발령 성취 여하’를 입서해 삼변서(三變筮)로 ‘건괰 사효동’을 얻은 ‘실점에’에서 점고하기를 건괰는 ‘공직자이면 승진을 바라고 있거나 일반인이면 관직을 기대하는 상’이다.

건지소축(乾之小畜 四動)				子年 寅月 戊子日
술	부효 세			
신	형효			
인	관효 동		부효 미	
진	부효 응			
인	재효			
자	소효			
건위천(乾金宮)		풍천소축		

이를 오행역(五行易)으로 살펴보면 구관구직점(求官求職占)이니 용신인 관효(官爻)가 동효로 발동(發動)해 세효(世爻)인 나를 생하고 월건(月建)도 용신관효를 생하고 있어 좋으나 오화 관효가 공망(空白)에 빠져 불길하고 태세(太歲)와 일진(日辰)이 합세(合勢)해서 용신오화(午火)를 자오충(午午)으로 극해 충상(動逢日冲而事散)이 돼 일이 흩어지고 허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홍몽선(洪夢鮮) 점여요약점’

또 다른 ‘선거 당선 여하’의 ‘실점에’에서 구사를 얻고 점고하기를 “구사는 음위에 양효로서 적극성이 부족하고 변손(變巽)해 의심함이 있어 끝까지 다하지 못하며, 효사에 ‘흑 뛰어 올라 다시 심연(深淵)에 빠진다’고 했고, 변소축(變小畜)의 효괘가 규괰(睽卦)로 구사의 응호인 조구에서 보면 번괰 육사는 연못(淵)에 잠긴 용상(龍象)이다. 그러나 구사는 목표인 구오에 근접해 있으니 당선은 안되나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한 즉, 15표의 근소한 차(差)로 낙선했다. 건괰 구오의 효사는 ‘비룡재천 이견대인(飛龍在天 利見大人), 즉 용이 하늘을 날아 오른다. 자기를 도와줄 대인을 만나 이름다’라는 뜻이다.

오효는 양위에 양효의 강건중정한 제왕(帝王)의 자리이다. 건괰의 주괰주(主卦主)이면서 성괰주(成卦主)로서 용이 하늘을 날으니 뜻을 이뤄 인간세상에서 더 이상 부리를 것이 없다. 하늘을 다스리는 통이천(統御天)하는 자만신이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명철한 대인을 만나야 한다. 대인을 만나지 못하는 비룡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상전에서는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것은 그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해서 ‘비룡재천 대인조야’(飛龍在天 大人造也)라고 말한다.

시운(時運)이 이보다 더 융성한 때는 없다. 용이 하늘을 날오는 것으로 원하는 일은 이뤄진다. 명예, 시험은 아주 좋지만 건강은 좋지 못할 수 있고 사업은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 드디어 용이 때를 만나 하늘로 승천해 하늘을 날고 있다. 용이 천하에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건지대유(乾之大有 五動)			
건위천		화천대유	

구오는 양위의 자리에 양효가 있고 자리가 바르고 중(中)을 얻었으니 강강중정(剛強中正)의 자리로 지존(至尊)의 위치에 바르게 있으면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고 드날린다. 이를 단전(爻傳)에 이르길 ‘운행우시 품물유형’(雲行雨施 品物流形)이라 했다. 즉 ‘구름이 행하니 비가 베풀어 내린다. 모든 만물이 형태를 갖추고 잘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언전(文言傳)에서는 ‘각정성명 보합대화 수출서물 만국합녕’(各正性命 保合大和 首出庶物 萬國咸寧)이라고 한다. 즉 ‘제각기 올바른 하늘의 품성을 명받아서 크게 화한 것을 보 존하고 합한다. 모든 만물이 씩이 터서 올라오니 만 나라가 다 평안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 나는 용이 욕심을 부려 더 높이 날면 상구 효사에 ‘항룡유회’(亢龍有悔)라 했으나 ‘용이 너무 높이 날아 후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구오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견대인’(利見大人)이라

했으니 자신을 보좌해 줄 왕희나 제갈공명 같은 유능한 인제가 필요함을 말한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구오의 때(※각주=하라이수(河洛理數), 차효는 덕위(德位)가 높아져 내려 보아 응납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자이다(是德位之隆而下觀不容己者也/시덕위지를 이하관불용이자야). 고로 협자(者)는 큰 공명을 세우고 부귀를 누린다(立大功名 享大富貴/일대공명 형태부귀). 불협자(不者)는 이소임을 강당기 어려워 벼룩이 날고 멀리 거행할 뜻은 있으나 이 또한 능히 이뤄 원하는 것을 성립하기 어려우니 마치 하늘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難當此任 雖有高飛遠舉之志 亦難克遠成立之願 如升天之不易也/난당차임 수유고비원거지시 역난극수성립지임 여승천지불이야)). 세운에서 구오를 만나면 벼슬하는 자는 청고한 직을 이룬다(必遂清高之職/필수청고지직). 선비는 반드시 황(黃)에 나부끼고 밟고 오를 계가 있다(必飛黃掃踏之有階/필황대답사유계). 서숙(庶俗)에 있어서는 존귀의 대가를 만나 피하는 바를 이루고 뜻을 얻는다(必遇尊貴之擢舉 而謀之得之/필우존귀지대거 이모수지득). 양회자(養晦者) 즉 중직을 감춰 덕을 닦는자는 대원가(大宦家)의 세도에 끼기 이하고, 큰 자택이나 왕가 궁전 대궐을 세운다(或近勢大宦家 或造甲第王家/혹근세대원가 혹조갑제왕가). 왕가에서는 궁전과 대궐을 세운다(王家 或建龍宮殿宇/왕가 혹은궁궁전우). 여명은 남편을 겸하나 고국 즉 부귀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女命 則兼男權 難免孤嫗/여명 즉남편난 년고귀). 효가 수효에 열린 자는 관사를 만날 조치가 있다(爻折斷者 有見官之光/효탁수흥자 유견관지조)를 만나면, 인생에서 황금기인 50대이다.

국가의 수반이나 단체의 장, 회사의 대표가 돼 이제는 더 이상 겸손이 미덕이 아니고 자신을 보좌해줄 대인을 만나 원하는 일을 이루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고 더 이상 확대하거나 새롭게 하면 항룡유회(亢龍有悔)가 된다. 그동안 기다려 왔던 소망, 거래 등 모든 일이 성취된다. 혼담도 여자의 경우는 최고의 남자를 만나고 잉태는 순산이나 다소 산기(產期)가 늦어진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분실물, 가출인도 돌아오고 찾는다. 다만 병세는 오효가 변하면 귀 혼괰가 되니 더욱 심해져 위험한 상태이고 상괰가 건변(乾變離)하니 고열과 갈증이 심하고 두통에 시달린다. 전시는 맑은 날이 지속되고 여름에는 폭염이다. 화재가 우려된다. ‘실점에’에서 구오를 얻으면 태양이 운행해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군자이자강불식’(君子以自彊不息)의 때이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로써 앞서 나간 자가 뜻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건괰 상구는 ‘항룡유회(亢龍有悔), 즉 용이 너무 높이 날아 후회가 있다’는 뜻이다. 상전에서는 ‘용이 하늘을 너무 높이 날아 후회가 있다는 것은 후회가 가득차 있으나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해 ‘항룡유회 영불가구야’(亢龍有悔 盈不可久也)라고 말한다.

상효는 더 이상 올라 갈 데가 없으니 내리막이다. 이미 하늘의 맛, 정상의 쾌감을 얻은 상태이다. 건강이나 재물 등에 손해가 나니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상구에 이르면 용이 최후의 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나야간다면 후회만 있을 뿐이다. 상구가 변하면 건지괰(乾之次)로 백전괰(澤天矣)가 돼 쾌는 ‘결단하는 뜻이고 사물이 붕괴된다’는 의미이다. 구오에서 대인의 역할은 구오가 상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룡의 위치에 도달한 자는 반드시 항룡의 길(※각주=도물선생은 항룡의 대표적인 일례로 ‘백정회가 유선현법을 만든 것’을 들었다. 그가 항룡의 길을 밟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을 도탄에서 구한 영원한 국민의 빛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도물주역강해 pp. 149))을 걷는 것은 운명적이다. 오직 성인(聖人)만이 예외이다. 세상의 성공한 범인들은 상구로 가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분투와 각고의 노력, 욕망의 제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점사에서 입서해 상구의 때(※각주=하라이수(河洛理數), 상구는 성(盛한 위태로움을 밝는 자이다(是履盛之危者也/시리성지위자야). 고로 협자는 귀하나 위가 없고 높음만 있으나 이름이 없다. 능히 겸손하고 경계한 즉 부귀를 길게 지킬 수 있다(貴而無位 高而無名 能知謙戒 則可長守其富貴/귀이무위 고이무명 능지겸계 즉가장수기부귀). 불협자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크게 여기며 공(公)을 속이고 법을 회롱하며 탈을 부르고 죄를 인도해 성립하기 어렵다(自尊自大 欺公玩法 招尤務難 難于成立/자존지대 기공완법 초우계흔 난우성립/뽀파비흔). 만약 여명이라면 성품이 반드시 새나워서 내조가 어렵다(若是女命 其性必悍內難辭)약시여명가성필한내조간신/뽀사나을, 성날한).

세운에서 상구를 만나면 벼슬하는 자는 벼슬에서 물러나 귀양을 가고(則退職遭貶/즉퇴직조폐), 선비는 죽음이 천거된 뒤에 손질 되었음을 당한다(則高邁後當有損折/즉고천후당유손질). 서숙(庶俗)인 즉 지나치게 강함이 있어 흥한 화를 취하며 오십 이후인 자는 수를 지키지 못한다(則有過剛取內之禍 五十以後者不壽/즉유과강취흥지화 오십이후자 불수))를 만나면, 인생의 60대로 세력권에서 벗어난 고문, 명예회장 등 실권이 없는 위치에 있다. 관직은 물러나고 사업은 부도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시기이다.

건지괰(乾之次 上動)		소망, 사업, 이전, 확장, 소송, 혼담 등 모든 일을 멈추고 접어야 한다. 이년 후 다음 곤위지괰 이효(直方大 不習无利)까지 기다려야 한다. 잉태는 역아(逆兒)로 구도중이 심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가출인과 분실물은 멀리 가버려 되찾기 어렵다.
건위천	백전괰	

병세는 건변태(乾變兌)로 건강 삼양이 태극으로 훼손돼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구토, 의식불명으로 급박한 상황에 도달한다. 전시는 지금까지 맑았던 날씨가 차츰 흐려지고 비가 올 듯하다. 지금까지 가뭄이 지속됐다면 비가 온다고 할 수 있다. ‘실점에’에서 상구를 만나면 이 사람은 순양(純陽)의 강건한 상으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로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상효변에 있으니 천명(天命)이 지나간 사람이다. ‘항룡유회’라 했으니 용이 하늘을 지나치게 올라 구름을 잃은 상태로 우로(雨露)의 은혜를 베풀 수 없게 된 상이다. 이제 현재의 지위를 물러나 한가(閑居)하고 풍월(風月)을 즐길 수 있는 한직(閑職)으로 물러나야 한다. 건괰 용구(用九)는 ‘견군용무수 길’(見群龍无首 吉)이다. 즉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용들이 머리가 없는 것을 본다. 길하다’는 뜻이다.

양(陽)에는 용(龍)의 상이 있고 강건(剛健)의 덕으로 나아가려는 기운이 강하다. 용이 모두 나아가려고만 하면 자연히 싸우게 된다. 상전에서는 ‘서로 싸우고 두각(頭角)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된다’고 해 ‘용구 천덕불가위수야’(用九 天德不可爲首也)라고 말했다. 흰선 용들이 서로 싸워 머리를 모두 잃게 되니 흥하기 짝이 없다. 단순히 건괰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양효는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용구(用九)는 육변서(六變筮)로 입서(立筮)했을 때 육효 모두가 동(動)하는 경우로 건괰(乾卦)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육양이 모두 육음(六陰)으로 변해 건(乾)을 버리게 되니 길(吉)할 수 없다. 용구의 육음은 무수(无首), 무아(无我)의 경지로 고집과 자이를 버리는 지혜를 터득해야 평등과 진보의 길이 열린다.

‘모인의 국가고시 합격 여하’를 문점, 중서법으로 입서해 건괰(乾卦) 초·이·삼·사효가 동해 ‘건지관’(乾之觀)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건위천괰는 공직과 관련된 괄로서 작은 일은 이효에서, 큰 일은 오효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이 ‘실점에’에서는 건괰의 사양이 변해, 즉 음효가 난동(亂動)을 부려 건괰가 완전히 무너져 오효까지 이르지 못하고 풍지관괰로 변했다. 건괰는 오효를 만나야 비룡재천 이견대인(飛龍在天 利見大人)해 뜻을 이루는데 오효에 이르기 전, 사효에서 멈췄으니 시험 장소인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뜻을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매주토,일오전)
-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가양성

